

HYUNDAI E&C

TODAY

Vol 412

2022 / 3 / 24 THU

발행인 윤영준
편집인 이영호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신고번호 종로 다0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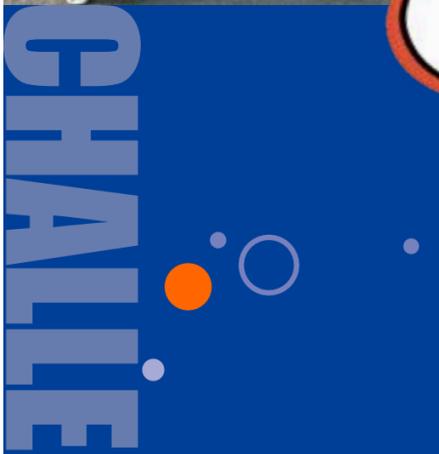


우리가 바로 현대건설의 미래! 인턴사원 104인의 도전

12주간 현장실습 과정 거쳐 ... 3월 말 신입사원 발령 예정



Growing Together



현대건설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성장엔진 '인턴사원'이 '현건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현대건설은 지난 1월 인턴사원을 선발하고, 12주간의 인턴 실습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인턴사원 채용에는 정규 4년제 대학 혹은 대학원 졸업예정자 3000여 명이 지원한 가운데 서류·면접 전형 등을 거쳐 총 104명이 최종 선발됐다. 특히 올해는 건설시장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응해 건축·안전 분야의 인원을 대거 늘린 것이 특징이다. 1월 3일 입문교육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인턴사원들은 이튿날부터 12주간 토목·건축·플랜트 등 67개 현장에 골고루 배치돼 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건설회사의 근본은 현장'임을 몸소 체험했다. 또한 현장 근무 특성이 각 본부가 주관하는 직무 세션 교육은 물론, 동기·멘토와 함께 유대감·애사심을 쌓을 수 있는 멘토링 교육에도 참석하는 등 업무 적응력을 높였다. 인턴사원들은 ▶관찰평가(현장 선·후임 멘토 상시 평가) ▶직무평가(온라인 직무교육, 평가) ▶과제 평가(개인과제 부여 및 PT 평가) ▶종합 인터뷰(관찰·직무 평가 기반 종합역량 검증) 등을 거쳐 3월 말 신입사원으로 채용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직무와 무관하게 모든 인턴사원들이 12주간 현장실습을 통해 현장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 시간들을 자양분 삼아 조직의 변화와 혁신에 가속도를 붙여넣는 신성장 엔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4,5면

Hyundai E&C recruited new interns and conducted a 12-week internship program in January 2022. For this program, a total of 104 interns were selected out of about 3,000 graduate-to-be from four-year universities or graduate schools through document screening and interviews. What is notable about this year's internship program is that Korea's primary builder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umber of interns recruited for building and safety areas in response to the change in the manpower deman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A venue for communication with partner companies

Regular meeting and management seminar for partner companies held

Our company held the regular meeting and management seminar for partner companies in Hotel Shilla, Seoul, on March 17.

The event, which marks its 11th anniversary this year, was conducted both online and on the ground due to the pandemic's new conditions. About 30 participants of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including CEO Yoon Young-joon as well as key officials of our partner companies attended the event in person while about 370 including chief executives of outsourcing and procurement contractors watched the event broadcast live online. The event, aimed at boosting organic co-

operation with the partner companies, commenced with H-Leaders general meeting, followed by CEO's opening speech, award ceremony for excellent partners, management seminar, and luncheon meeting.

In particular, special sessions were well received by the participants: Our executives provided special lectures under the themes of Hyundai E&C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trategies for 2022, The Era of Great Transformation: Future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Hyundai E&C Procurement Strategies for 2022.

"A mid unclear market situations in 2021, Hyundai E&C could postre-



cord-high revenue thanks to active co-operation with our partner companies," said CEO Yoon Young-joon. "I would

like to request our partner companies to actively take part in our safety and quality processes as Hyundai E&C is putting

all-out efforts into the establishment of an advanced response system to safety and quality as a top priority."

2022년 협력사 협의회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 개최

3월 17일, 온·오프라인으로 외주·구매 협력사 대표 등 400여 명 참여

우리 회사가 협력사와 더불어 성장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우리 회사는 3월 1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라호텔 루비홀에서 '2022년 협력사 협의회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리 회사 운영진 사장을 비롯해 협력사 주 외 관계자 30여 명이 행사에 직접 참석할 가운데 외주·구매 협력사 대표

등 370여 명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2022년 협력사 협의회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에 함께했다.

협력사와 유기적인 상호협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 H-Leaders 정기총회 ▶ 사장님 인사말 ▶ 우수 협력사 시상식 ▶ 경영자 세미나 ▶ 오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 회사는 '우수 협력사 시상식'에서 안전부문 최우수상에 '서용건설'을, 공정부문 최우수상에 '엘에스건설'을, 품질부문 최우수상에 '에스텍

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 또한 정관조경 등 5개 기업은 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경영자 세미나 시간에는 우리 회사 경영진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2022년도 현대건설 구매정책' '2022년 현대건설 안전·보건 경영 전략' '대전환의 시대, 건설산업의 미래' 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우리 회사 운영진 사장은 "지난해 불투명한 시장 상황 속

에 현대건설이 최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협력사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문을 연 후 "건설업에 대한 민국의 중심 산업으로 명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과 품질 최우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 시스템 마련에 전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현대건설의 안전·품질 프로세스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지난해 3년 연속

동반성장 지수 평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며 협력사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실제로 우리 회사는 2020년부터 '국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협력사들의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이행 및 선금금 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유용성 지원을 위해 업계 최대 규모인 1600억원 상당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용 중이다.

Our company receives housing construction deals

Our company was awarded a deal to build new accommodations in Siwha MTV Bandal Island, Korea's first artificial island, on March 2. Our company also received orders to refurbish Gangchon Apartment in Yichon-dong, Yongsan-gu, Seoul, and redevelop Jangdae Zone B in Yusong-gu, Daejeon, at the end of February.



주택 수주 '활발' ... 생활숙박시설·도시정비 공사 따내

우리 회사가 잇따라 주택 수주를 따내며 경영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우리 회사는 3월 2일 (주)에이치이비엔달섬씨식스개발이 발주한 '시화 MTV 발달섬 C6-1B' 생활숙박시설 건축공사를 수주했다. 5061억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지하 2층-지상 49층 5개 동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1191실과 부대시설을 짓는 공사다. 현재 경기도 안산 시화호 일대는 발달섬과 거북섬을 중심으로 수도권 최초의 해양레저 복합도시 '시화 MTV'가 조성 중이다. 우리 회사는 이 일대에 이번 프로젝트를 비롯해 '힐스레이트 시화호 라군 인터라스'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우리 회사는 2월 말 '용산이촌동 강촌아파트 리모델링사업'과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도시정비 부문에서 136638억원의 수주액을 달성했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되는 강촌아파트는 용적률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용적률 484.7%, 건폐율 37.1%를 적용해 지하 5층-지상 29층, 공동주택 9개 동, 총 1114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최초의 장욱 재개발 공사비 8800억원에 달하는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일대 6만5246㎡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9층, 총 9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2900가구로 거듭난다.

Our company wins 2021 Deals of the Year Awards



Our company won Structured Financing of the Year Category at the 2021 Deals of the Year Awards of Latin Finance on March 10, the first of its kind among Korean builders.

The financial agreement signed in July last year for the Panama Metro Line 3 construction

project was considered the largest transaction in the history of the country'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the structured financing was participated in by financial institutions around the globe from Asia, Europe and the U.S., explained Latin Finance. The Panama Metro Line 3 construction deal is designed to connect Panama City and the western Arraiján region.

국내 건설사 최초, 라틴파이낸스 '2021 올해의 딜' 구조화 금융 부문 수상

우리 회사가 3월 10일(현지시간) 국내 건설사 최초로 중남미 지역 유력 매체 '라틴파이낸스(Latin Finance)'의 '2021 올해의 딜(Deal of the year)' 구조화 금융 부문에 선정됐다.

라틴파이낸스지는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현장'이 지난해 7월 체결한 금융 약정이 파나마 인프라 사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래였을 뿐 아니라 아시아·유럽·미국 등 세계 각국 금융기관이 참여한 점을 선정의 배경으로 꼽았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0년 수주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 사업'은 파나마 수도 파나마 시티와 서부 아라이잔 지역을 연결하는 28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다. 당시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장기 수출채권 매입'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중남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2021년 7월 29일에는 파나마 국책은행을 비롯한 10여 개의 글로벌 은행들이 총 9년간 27억 달러 규모의 '건설대금 지급 확약서'를 매입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금융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1988년 창간된 라틴파이낸스지는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의 경제·금융시장을 대표하는 매체로, 매년 기념비적인 거래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현대건설-한국씨티은행

'글로벌 사업 확장 및 ESG 가치 이행' MOU 체결

현대건설과 한국씨티은행이 2월 24일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 사옥에서 '글로벌 사업 확장 및 ESG 가치 이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현대건설의 해외 시장 적극 공략을 위해 한국씨티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선진화된 금융 상품을 활용하고, 지속가능 성장과 ESG 가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이 추구하는 ESG 금융 확대 방침과 현대건설이 주력하고 있는 해상풍력, 수소액화 등 ESG 시장 확대 전략이 시너지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활용



다양한 성공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사는 지난해 씨티은행의 주도로 한국 ECA(Export Credit Agency) 및 글로벌 은행 등과 협업해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의 초대형 금융조달 계약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은 바 있다.

저장탱크 도장 사양 최적화 JDP 성과보고

우리 회사가 최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저장탱크 도장 사양 최적화를 위한 공동개발 프로젝트(JDP, Joint Development Project) 성과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회사 플랜트사업본부 임용진 본부장을 비롯해 글로벌 도료 생산 업체 요턴(Jotun), IPK(International Paint Korea), 국제검증 전문기관인 로이드선급(Lloyd) 등 프로젝트 관계자가 함께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 3월부터 프로젝트 관계사와 물, 화학물, 원유 등을 저장하는 탱크의 도장 사양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250여 개의 시험용 패넌을 제작하는 한편, 검증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 ISO 기준을 적용한 최적화된 사양 도출에 성공했다. 현재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고도화



설비 공사 현장에 적용해 도료 불량 절감, 도장 횡수 감소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회사 관계자는 "4개사가 보유한 기술 데이터,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장탱크 도장 사양을 개선할 수 있었다"며 "기술력 확보를 토대로 향후 입찰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는 '2023년 미국 부식방지학회(2023 NACE Conference)'에도 등재될 예정이다.

CULTURE

Chamber music festival regains spring in its step

The annual Seoul Spring Festival of Chamber Music (SSF) has shaken off the heavy undertones of the last two years, inevitable with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regained its spring festive mood. The change of atmosphere for this year's 17th edition, which kicks off on April 22, can be instantly sensed in the festival's poster, featuring artwork with vernal hues. The work is by contemporary Korean artist Maria Chang and is entitled "In between - Spring Series (Baby pink)."

"Cello!" is the theme of this year's SSF, bringing the cello into the limelight. In 2011, it focused on the piano under the theme "Pianissimo!" and in 2012 the violin under the theme "Mystical Voice."

There will be 12 performances over the course of 13 days and all will include a cello piece in the program. For example, during the opening concert "Anniversaries" on April 22 at the Sejong Chamber Hall of the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in central Seoul, cellist Kang Seung-min and pianist Chloe Jiyeong Mun will perform Scriabin's "Romance for Cello and Piano." On April 26 at the IBK Chamber Hall of the Seoul Arts Center in



southern Seoul, five cellists will be on stage to perform Boccherini's "Cello Quintet No. 60 G324 'Night Music of the Streets of Madrid.'"

If you want to pick one program to see an array of cello performances, you should circle May 1 on your calendar for the "Family Concert: Originals and Variations," which will be held at IBK Chamber Hall. The first part of the concert will be all about the cello. The program includes different pieces for a different number of cellos, such as Offenbach's "Duo for 2 Cellos in E Major, Op. 54 No. 2 3rd Mov.," Popper's "Requiem for 3 Cellos and Piano," Strauss's "Pizzicato Polka for 4 Cellos," among others.

BY YIM SEUNG-HYE [YIM.SEUNGHYE@JOONGANG.CO.KR]

The 2022 Hyundai E&C Technology Awards to receive entries

Our company is holding the Hyundai E&C Technology Awards with the aim to take the initiative in discovering institutions with excellent technology and developing future construction technology.

This year, our company receives entries from domestic compan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from March 1 to April 15. The entries can apply for the categories such as cost-saving technology



(development of civil engineering, building, housing and plant construction methods and equipment) and differentiated construction technology (smart construction and new growth businesses). Related documents can be submitted at www.hdec.kr.

The accepted entries will go through document screening in May and June and presentation in July, and final winners will be announced in September.

'2022 현대건설 기술공모전' 응모작 모집

우리 회사가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발굴하고, 미래 건설기술 발전에 앞장선다. 우리 회사는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내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22 현대건설 기술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 분야는 ▶원가 절감형 기술(토목/건축/주택/플랜트 공법/장비 개발) ▶건설 차별화 기술(스마트건설, 신성장 사업) 등 건설 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현대건설 홈페이지(www.hdec.kr)에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응모작은 5~6월 서류심사, 7월 발표 심사를 거쳐, 9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상생협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1팀), 우수상(4팀), 장려상(10팀) 등 최대 15개 팀이 선정되며, 수상팀에는 상금 5000만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중소기업이 수상할 경우 1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 지원과 함께 기술 멘토링, 기술검증 적용 현장 제공, 협력사 등록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 협의를 거쳐 현대건설 기술연구원과 연구개발 협력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대건설 기술공모전을 통해 건설산업의 미래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상생협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GROUP NEWS

Hyundai Motor Company inaugurates its first manufacturing plant in Southeast Asia

Hyundai Motor Company today inaugurated Hyundai Motor Manufacturing Indonesia, its first factory in Southeast Asia, located in Deltamas industrial complex near Cikarang, Indonesia, 40 kilometers east of the capital city of Jakarta.



The inauguration follows Hyundai's signing of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the Indonesian government to build and operate a local manufacturing plant that will become Hyundai's manufacturing center for Southeast Asian markets.

The ceremony was attended by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Joko Widodo, Coordinating Minister of Maritime and Investment Luhut Binsar Panjaitan, Coordinating Minister of Economic Affairs Airlangga Hartarto, Minister of Investment Bahilil Lahadalia, Minister of Transportation Budi Karya, Minister of State-Owned Enterprises Erick Thohir, State Secretary Pratikno, Korean Ambassador to Indonesia Park Tae-sung, and Executive Chair of Hyundai Motor Group Euisun Chung.

Last December, Hyundai completed construction of the factory with an initial production capacity of 150,000 units. Hyundai plans to invest in the plant amount of around USD 1.55 billion and the production capacity is due

to be increased to 250,000 units.

Hyundai Motor Manufacturing Indonesia exemplifies the company's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vision of "Progress for Humanity." This can be seen in the us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such as solar panels that can meet part of the plant's electrical needs. In addition, Hyundai plans to use environmentally friendly water-based paints in the vehicle painting process.

"Today, I inaugurate and launch Hyundai Motor Manufacturing Indonesia's plant and the first IONIQ 5 electric car produced in Indonesia," said Joko Widodo,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Indonesia is a key hub for Hyundai Motor's future mobility strategy. This plant will play a key role in the automotive industry and specifically in the field of electric vehicles," said Chung, Executive Chair of Hyundai Motor Group.



★ 동기사랑! 회사사랑! ★

BOOM!

VROOM~ GENESIS!

현장 업무까지 두루 익힌 2022 인턴사원, 현대건설 1000% 적용 완료!

2022 인턴사원 현대건설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다. 다양한 경험과 자격증 취득 등 경쟁력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턴사원 104명이 그 주인공. 12주간의 현장실습 교육을 받으며 현대건설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인턴들이 오는 3월 말 신입사원 전환을 앞두고 있다. 모든 것이 낯설었던 '건설이(건설 어린이)'에서 제법 전문가의 분위기를 풍기는 인턴들의 현대건설 적응기를 소개한다. 글·정리=강은비



1.6.10 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2.4.7.8.14.15 1차 멘토링 교육 활동 중 랜드마크를 방문한 인턴들이 조별로 특색 있는 사진을 찍었다. 3.13.16.18 2차 멘토링 웨어 클래스 활동 중인 인턴들. 5 IT 적인 인턴들이 본사에서 온라인 교육을 듣고 있다. 9 영동대로 지하공간 3공구에서 현장실습 중인 강현술-장영길 인턴. 11 대곡사서 복선전철 1.2공구에 근무 중인 김중환-박현준 인턴. 12 현장에서 작업 중인 김현술 인턴. 17 토목 직무 인턴들이 본사에서 멘토와 함께 사보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19 3차 멘토링 활동으로 전시장에 방문한 인턴들.

지난 1월 3일, 현대건설 '뉴비'들이 등장했다. 그 주인공은 따끈따끈하게 입사 신고식을 마친 올해의 신입 인턴 사원(이하 인턴). 인턴들은 코로나19로 아쉽게도 첫 출근 대신 온라인 교육으로 한데 모였다. 화면에 비친 인턴들은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교육이 시작하자 열정 가득한 면모를 선보였다.

규영철 인사실장은 현대건설에 첫발을 내디딘 인턴들에게 짧지만 진심어린 인사를 건네며 특유의 입담을 곁들여 건설산업과 현대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신석호 인턴은 "현대건설 75년 역사와 도전 정신을 이어받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현건인'이 되겠다"며 "대한민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현대건설에 입사한 것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입문교육을 통해 막연했던 건설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대건설의 뿌리를 알게 된 인턴들은 건설업의 근간인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전국 67개 현장에 고루 배치됐다. 12주간의 실습으로 건설 현장의 세심한 업무까지 몸소 경험할 수 있게 된 인턴들은 현장실습 외에도 동기들을 만나 유대감을 돈독하게 쌓을 수 있는 '멘토링 교육'과 각 분야에서 주관하는 '직무교육'을 받으며 건설인이 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인턴 적응기 Chapter 1 **현장 편** **어색하던 아침 구호도 이제는 익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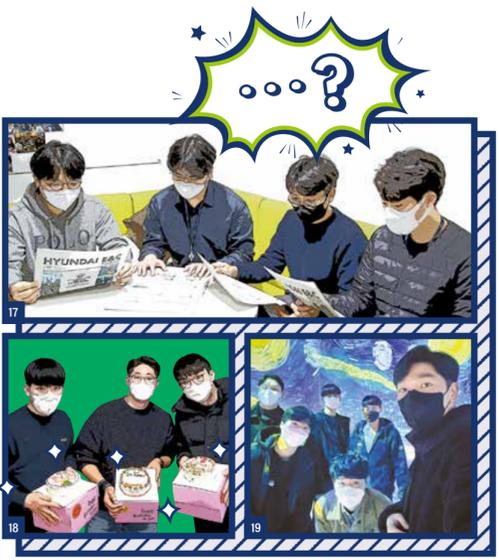
"입사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젠가 단 질문에 인턴들은 떠나 할 것 없이 '낮선 현장에 처음 출근해 어색하게 아침 구호를 외쳤던 때'라고 답했다. 이제는 누구보다 힘차게 '무재해! 가자! 좋아, 좋아, 좋아!'를 외치는 인턴들에게 유난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안전의식'이다. 인턴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현대건설 취직문을 두드릴 때부터 회사가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올해 인턴 중 안전 직무의 비율이 다른 때보다 높은 이유이자 안전기사 자격증이 있는 인턴이 많은 이유다.

본격적으로 현장에 배치돼 업무를 시작하기 전, 현장 신규 입사자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무조건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 바로 안전교육일 것이다. 현장 필수 안전교육 이수다. 인턴들은 현장 안전교육을 들으며 안전의 중요성과 우리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지를 체감했다. 김규동 인턴은 "안전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돌아보며 근로자의 작업복부터 현장 작업수칙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며 모든 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며 "하루에 두 번씩 시행하고 있는 TBM 활동도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직접 느꼈다"고 했다.

직무와 관계없이 현장으로 간 인턴들에게 필드에서 직접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은 더욱 소중한 것이다. 현장 전반의 이해를 위한 공무업무, 공정관리, 사업관리, 사업수행과 안전까지 두루 체득할 수 있어 빠른 시간 안에 건설업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송승환 인턴은 "현장 근무를 해보니 대학교 때 배웠던 전공 지식을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건설장비 사용법과 설계도면 보는 법 등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어 좋았다"며 "현장 수행 업무의 기초를 다질 수 있어 뜻 깊었다"고 말했다. 안전 직무 인턴들은 현대건설의 안전보건-안전관리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며 현장 안전의 토대를 쌓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더욱 강화된 현장의 안전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참신하고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현장에 제안하기도 했다. 송승범 인턴은 "업무에 투입되기 전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막연했던 직무가 보다 생생하게 다가왔다"며 "실무 적용에 큰 도움이 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현장 안전을 위해 보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인턴 적응기 Chapter 2 **멘토링 편** **동기이로 애사심까지 범범!**

"동기와 함께 하는 교육이 없어 아쉽다"던 인턴들이 가장 기다리던 날이 왔다. 바로 '동기 사랑, 회사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멘토링 교육이다. 기업문화에 익숙한 이 교육은 동기들과 유대감을 쌓고 애사심을 느낄 수 있도록 조별 케리큘럼으로 구성됐다. 멘토링 교육 담당자는 "코로나로 대면 교육



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인턴들이 너무 원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아 코로나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지키며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멘토링 교육이 진행된 지난 1월 27일, 입사 후 한 달여 만에 정식으로 동기를 만나게 된 인턴들의 얼굴에 기대감이 엿보였다.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에서 열린 멘토링 교육은 자기진단키트를 실시한 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간단한 성격조사도 포문을 연 멘토링 교육은 현대건설 조직과 인사 제도, 다양한 기업문화 활동을 소개하는 강의에 이어 하이라이트 활동인 '현대건설이 지은 랜드마크 방문하기'로 꾸며졌다. 우리 회사가 지은 대표 건설물 세 곳을 직접 다녀온 인턴들은 "서울에 있는 랜드마크 대부분을 현대건설에서 지었다고 놀랐고, 자부심과 애사심이 마구 솟았다"고 했다. 또한 멘토링 교육에 대한 후기를 전한 강현술 인턴은 "1차 멘토링으로 동기들과 처음 만났을 때 드디어 함께 회사 생활을 해나갈 활력을 찾은 기분이었다. 모든 동기와 이야기해 보지 못해 아쉽지만, 같은 조 동기들과 친해져서 기쁘다"며 웃었다.

1월 교육에서 한차례 친밀감을 쌓은 뒤 진행된 2월 21일 2차 멘토링 교육은 한결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인턴들은 강의실에 도착하자마자 서로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오전 강의에서 인턴들은 회사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이는 한편, 타사의 우수 제도 및 문화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불꽃 튀는 오전 강의와 다르게 오후 활동은 인턴들의 부드러운 감성을 깨우고 힐링을 선사하는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됐다. 12차 멘토링 활동 중 인턴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케이크&꽃박스 만들기' 클래스에 인턴들은 그 어느 때보

다 집중력을 보이며 가지고 있는 모든 미적 감각을 살려 케이크와 꽃박스를 완성했다. 소중한 사람에게 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 제각각 개성을 자랑하며 완성됐다. 난생 처음 케이크를 만들어봤다는 박재연 인턴은 "동기들과 케이크를 만들 줄은 생각도 못했다. 완성작을 보니 생각보다 뛰어난 동기들의 미적 감각에 놀랐다"고 했다. 꽃박스를 제작한 장영길 인턴은 "누구에게도 선물 못할 '망작'을 생각했는데, 완성하고 보니 부모님 생각이 절로 났다. 꽃박스를 받은 부모님께서 감동하셨다고 해서 무척이나 뿌듯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인턴 적응기 Chapter 3 **직무 교육 편** **사원증 목에 걸고 설업 가득 봉사 출근!**

"사원증을 목에 걸고 점심시간에 돌아다니는 직장인이 제일 뿌듯했어요"라고 말하던 인턴들이 자랑스럽게 사원증을 걸고 봉사하러 나섰다. 12주의 교육기간 동안 틈틈이 직무교육을 듣기 위해 봉사로 출근했던 것. 각 부서가 주관하는 직무교육은 본사에서의 포괄적인 업무, 프로그램 교육, 현장과의 협업관계 파악, 멘토와의 Q&A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김규동 인턴은 "직무교육을 듣고 나니 건설회사의 뜻은 '현장'이고, 본사는 현장을 지원하는 '양분'과 같다고 느꼈다"며 "멘토들에게 전수받은 회사생활의 노하우를 토대로 현장과 본사를 두루 아는 '만능 사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IT 직무의 인턴들은 직무 세션 기간에 'Power BI'라는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프로그램과 연결된 Excel의 다채로운 활용법과 데이터 시각화 방법을 배운 인턴들은 그 결과물을 직접 확인했을 때 성취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박종혁 인턴은 "현장에서 근무해 보니 실제로 필요한 프로그램과 개선되면 좋을 부분을 알게 됐다. 본격적으로 IT 업무를 하게 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전 직무 교육은 현장의 사고를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우리 회사 안전체험관에서 진행됐다. 인턴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CPR 교육부터 화재 시 대피 요령, 추락사고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며 현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겼다. 안전 실습 후 강현술 인턴은 "화재 대피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쉽게 탈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고 보니 전원이 차단돼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현장에서 비상대피로, 비상조명등이 많이 설치된 이유와 비상사태에 대비해 안전시설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내비쳤다.

12주의 교육기간 동안 현대건설인이 되기 위해 현장과 본사를 오가며 그 누구보다 고군분투한 2022년 인턴사원들. 그들이 보여준 열정과 패기는 진정한 '현건인'으로 탄생하는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됐다. 12차 멘토링 활동 중 인턴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케이크&꽃박스 만들기' 클래스에 인턴들은 그 어느 때보

주목! 2022 화제의 인턴을 만나!

기사자격증 3개 취득한 미래의 안전관리자 주재준 인턴사원

안전관리 업무도 아는 만큼 위용이요인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임직원 안전자격을 취득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로서 다른 직원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취득한 자격증의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배움의 자세로 현대건설 명예로운 안전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기술교육원에서부터 꿈꿔온 현대건설입사! 박현준 인턴사원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을 다니면서 교수님들이 차고 다니셨던 사원증이 꼭 갖고 싶었습니다. 오직 현대건설만을 바라보고 취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포기하며 SPA를 격중 취득, 늦은 밤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동안 안전관리자로서 다른 직원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사원증을 받은 날에는 너무 기뻐 사원증을 목에 걸고 갔습니다(웃음). 회사 생활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취업 전 간담회를 잊고 꾸준하게 명성이 결말은 안전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신입인턴 중 유일무이한! 윤준호 인턴사원

5년의 열에 끝에 지난 5월 5일 결혼한 뜻깊은 신혼입니다. 현대건설에 입사하기 전 타 건설사에서 근무했는데, 최고의 건설사인 현대건설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취업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아내도 적극적으로 응원했고요! 꿈꾸던 현대건설에 입사한 저의 목표는 초·중·고·비정형 건물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에 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근무할 모든 현장에서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양질의 교육·역지사지 내분이 되겠습니다.



현장답방 아름다운 동해를 품은 열차가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프로젝트가 2023년 12월 완전 개통이라는 대단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국도가 아니면 닿을 수 없던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여서 지역주민은 물론 국내 여행객들도 크게 반기고 있다. 우리 회사는 전체 17개 공구 중 최장교량 공사가 포함돼 있는 12공구의 노반건설을 책임지고 있다.
글=박현외 / 현장리포터=정승식 책임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2공구 노반건설 현장

경북 동해안을 잇는 꿈의 기차길... '철의 실�크로드' 이뤄질까

경북 동해안은 '푸버이' 여행객에게만 익숙하지 않은 곳이다. 강원도 대표 관광지인 강릉과 산업·관광도시인 부산 등 동해안의 다른 지역은 오래전부터 고속도로나 철도가 놓여 있었지만, 영덕군과 울진군 등 경북 동해안은 국도가 아니면 닿을 수 없는 오지와 같았다.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프로젝트는 국토의 균형발전, 동해안 관광벨트 구축과 더불어 남북 교류협력과 유라시아 국제철도의 기반 마련을 위해 계획됐다. 총연장 166.3km(19개 역), 총사업비 3조3000억원 상당의 메가 프로젝트 아래로는 포항~울산을 지나 부산, 위로는 강릉~고성 제진까지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종단한다. 동해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부산부터 북한 나진역, 두만강역에 이르는 남북철도 동해 축이 완성된다.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 등과 추가로 연결될 경우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로 이동하는 '철의 실�크로드'가 더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된다.

삼박자 두루 갖춰 수주-오는 6월 준공 예정

17개 공구로 나뉘어 발주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프로젝트는 2014년 당시로서는 생소한 종합심사 낙찰제(일명 '총심제')로 진행된 시범사업이다. 총심제는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서 공사 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 우리 회사는 오랜 토목공사 노하우와 적정

가격, 건설인력 고용 기여도, 공정거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12공구를 단독으로 수주했다.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울진은 온양리 일원을 잇는 12공구는 총연장 7.54km, 1317억원 규모로 교량 4개소, 터널 2개소, 정거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거점 역인 울진역사와 전체 공구 가운데 최장교량인 왕피천교가 포함돼 있어 당시 주목을 받았다. 2015년 1월 착공한 12공구의 공기는 준공 예정일인 202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7년이 훌쩍 넘는다. 오랜 공사기간은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프로젝트의 다른 공구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4년 급하게 발주되면서 건설현장의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탓이었다. 건설사들은 착공 후에도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 추진 목표를 세울 수 있었고, 이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였다. 현장 관계자는 "이 외에도 각종 민원과 용지 보상, 문화재 조사 등 여러 이유로 공사가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2017년 4월 여러 현안이 해결되며 급물살을 탄 현장은 2018년 12월 교량 설계를 확정짓고 2020년 12월 왕피천교가, 울진교가 설치를 마무리했다. 2021년 12월 구조물 및 터널 노반공사를 완료한 후, 3월에는 전가·통신 등의 공종을 맡은 타 분야에 노반 인수인계가 시 마쳤다. 공종률은 95%로 현재 울진역사, 광장 잔공 입 도포와 기타 부대공사 등 막바지 작업 중이다.

약조건 이겨내고 왕피천교가, 울진교가 완성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2공구 노반건설 프로젝트의 난코스는 메인 공사이기도 한 왕피천교가, 울진교가 설치였다. 왕피천교가 트러스교 구간은 길이 108m, 폭 8.4m, 높이 10.6m에 총중량 1132t 규모다. 트러스는 강판으로 만들어진 크기가 작은 여러 부재를 삼각형으로 조합한 골조 구조로, 트러스교는 트러스를 연속해 만든 다리를 뜻한다. 우리 회사는 트러스교 설치에 추진대(일종의 레일)를 이용해 교량을 이동·설치하는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 공법'을 사용했다. '밀어내기 공법' '압출 공법'으로도 불리는 ILM은 교각(교량 하부구조)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레일을 깔아 육상에서 제작한 여러 조각의 상부 구조물을 순차적으로 밀어(Launching) 상판을 완성하는 기술이다. 현장은 국도 7호선(울진)의 차량 흐름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미션과 더불어 세밀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해 ILM 작업 시 '자동화 계측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각 부재의



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선형을 정밀하게 조정했고, 전체 공구 중 최장교량이자 국내 단선철도·단일경간 가운데 가장 긴 왕피천교를 성공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다.

왕피천교가 '단선철도 최장'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 울진교는 여러 약조건을 이겨낸 공사라 의미가 있다. 울진교의 아치고 구간은 길이 85m로, 산사천이라는 지방천과 지방도 917호(울진)가 교차하는 지점 건설된 교량이다. 작업부지가 너무도 협소했으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울진에서 왕복 2차로인 지방도 917호의 역할은 상당한 것이어서 도로를 차단할 수 없었다. 더욱이 산사천은 통수(물이 이동하는 통로) 단면이 부족해 하절기에는 범람하기 일췌였다. 교량 시공에 흔히 사용하는 크레인 가설 장비(론칭 갠트리·Launching Gantry)나 ILM 공법 등을 적용하기 어려울 만큼 공간이 좁은 데다 시공 시점이 장마철인 점도 현장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 회사는 '안전 최우선'을 실현하고자 해비 리프팅 시스템(Heavy Lifting System)을 채택했다. 지상에서 제작한 구조물을 들어 올린 후 옆으로 밀어 넣어 교각을 거치는 이 특수공법 덕분에 현장은 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성과 시공성까지 두루 높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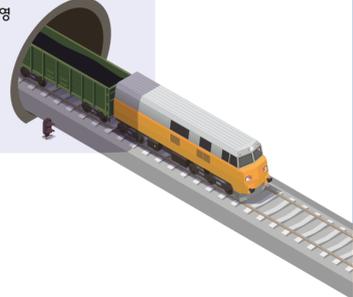
'전 공종 직영공사'라는 또 하나의 도전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2공구가 있는 울진은 '교통 오지'로 불린다. 교통 인프라의 부재는 지역 발전을 더디게 만들었고, 이 점은 현장 진행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착수 시점부터 협력사들이 인력·자재·장비 등의 수급을 어려워했고, 급기야 토공 및 교량 구조물 업체가 공사를 포기한 것. 고된 끝에 현장은 전 공종을 직영화하기로 결정했다. 직영공사를 통해 안정적인 현장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장의 사업 수행팀·직영작업반 반장·사업지원팀은 수시로 소통했고, 일일·주간 단위의 공종회의를 통해 인력과 장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늘어난 업무량만큼 책임감의 무게도 커진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 등 원활한 공정 진행을 위해 헌신했다. 12공구는 우리 회사 직영공사 파일럿(Pilot) 현장으로서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현장 직원들이 흘린 무수한 땀방울은 회사의 크나큰 자산이 됐다. 현장은 지난 85개월 동안 수많은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 왔다.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직원들의 투지와 팀워크는 흔들림이 없다. 현장 직원들은 "동해권 핵심 교통거점 건설에 일조한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최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공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 돋보기

안전관리의제1 원칙, 기본 잘 지키기!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2공구 노반건설 현장 직원들은 설계변경이 빈번한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안전에 고려한 공법 선정에 역점을 뒀다. 시공성을 향상하고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 단계를 단순하고, 공종을 단순화하는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한 것. 특히 신규·위험 공종이 있을 때 전 직원이 기술회의에 참여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시공 방법을 개선했다. 또 교량 시공에 필수인 고위험 작업인 폭압 양중(자재 운반하거나 드는 것)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시공·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작업계획을 충실히 세웠다. 직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현장의 안전관리 팀은 기본을 잘 지키는 것. 고소 작업이 필수인 슬래브 거푸집 설치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현장 맞춤형 안전대 걸이를 제작하고, 가로보(메인 거더의 가로 방향) 작업대, 영구양카를 활용한 추락 방지 시설 등은 발주처에 우수 안전관리 사례로 선정되며 다른 공구에 전파되기도 했다.



mini interview

성공적인 공사 수행의 일등공신, 현장의 직원들

- 자기가세 부탁합니다. 김희홍 현장소장(이하 김) 안녕하세요.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2공구 노반건설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김희홍 소장입니다. 우리 현장에는 2016년 5월 부임했고, 철도 현장 경력은 18년가량 됩니다.
- 백운필 책임(이하 백) 현장 배치(2016년 4월) 당시에는 업체 선정, 예산 관리 등 대내업무는 했지만, 현재는 대내외를 가리지 않고 전천후로 일하고 있는 백운필 책임입니다.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 이선형 매니저(이하 이) 2017년 5월부터 사업수행팀 소속으로 구조물 시공을 맡고 있는 이선형 매니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구조물 등 직영공사를 처음 수행해 봤습니다. 덕분에 많은 노하우가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 한정아 팀장(이하 한) 현장 부임은 제가 제일 먼저 한 것 같네요(웃음). 2015년 3월부터 7년 여간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정아 팀장입니다. 토목 현장의 특성상 대형 장비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크레인 안전관리 부분에서 베테랑이라 자랑합니다.

건설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교량 시공이 많아 대부분이 크레인 거치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현장은 신규 위험 작업 전 반드시 '시공 안전 발표회'를 열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했습니다. 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한 소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이 "확인하자"입니다.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작업 내용을 수차례 반복해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내용이 오지않. 안전관리로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나, 작업자가 작업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여러 차례 확인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김 한정민 관리 인력으로 100억원이 넘는 직영공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모두가 '해박자'를 외쳤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공사를 이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백 맞습니다. 현장의 모든 직원이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인 자세로 업무에 뛰어든 결과 직영공사를 잘 이끌어 올 수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자질을 우리 현장을 통해 모두가 증명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6월 말 준공입니다. 각오가 있다면?

백 준공까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웃으며 현장을 떠나면 좋겠습니다. 고래는 물론 나와 내 가족까지도 만족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남은 잔여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집중력을 발휘하겠습니다! 한 같은 토목 현장을 다녔지만, 똑같은 상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인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2공구 노반건설 현장 파일럿! 김 결함 없는 준공이 되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면을 빌려 현장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1 현장 직원들은 최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의 개통으로 위축된 울진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국도7호선(울진)을 횡단하는 트러스교 구간인 왕피천교가 전경. 2 공사 시점 본선 토공 1구간. 3 울진교의 아치고 구간. 4 본선 토공 4구간(울진터널 시점 패널식 옹벽 시공 전경) 5 시공이 완료된 내대천교-고성터널 시점. 6 울진정거장-토공 3구간-울진2교가 한눈에 보인다.

메타버스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기술칼럼 “메타버스 세상이 오고 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2020년 개최됐던 자사 개발자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예언대로 ‘메타버스 세상’이 도래한 것처럼 보인다. 많은 전문가가 지난해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로 ‘메타버스’를 꼽았다.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로 바꿨고, 디즈니는 메타버스 전략을 총괄하는 임원을 새로 임명했다. 글=박주연 <한국경제> 기자



메타버스는 실생활에도 스며들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후보 당시 일본 게임회사 닌텐도의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란 게임에서 유세를 펼쳤다. 비단 외국의 낯선 사례만이 아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사무식을 메타버스에서 열었다. 삼성전자는 최근 메타버스를 통해 협력회사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 전망도 장밋빛이다. 시장조사 업체 스테티스타는 2024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900억 달러(약 338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향후 시장 규모가 8조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선도 만만치 않다. 메타버스를 제대로 구현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관련 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마케팅 용어로 남발되고 있다는 평이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가 ‘지속 가능한’ 플랫폼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가상과 현실세계의 합성어

메타버스는 가상·추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그렇다고 단순히 게임이나 가상현실에서 이뤄지는 사용자들의 상호작용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사회·문화적 활동을 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재화의 소유, 투자, 이에 대한 보상 등을 받는다. 현실 세계의 확장판인 셈이다.

새로운 단어는 아니다. 메타버스란 단어는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쓰였다. 이 소설에는 마피아가 장악한 미국에서 살아가는 ‘히로’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히로는 고단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을 때면 메타버스에 접속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처럼 스스로 디자인한 아바타가 살아가는 ‘또 다른 현실’이다.

20년 가까이 된 이 용어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부터였다. 게임회사 로블록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시장의 관심도 폭발했다. 구글 트렌드 검색에 따르면 로블록스가 상장한 뒤 메타버스를 검색한 횟수는 이전보다 14배 넘게 늘었다.

기업들의 잇따른 투자, 미래의 수익?

늘어난 관심은 자본을 끌어당겼다. 지난해 6월 뉴욕증시에선 처음으로 메타버스 관련주에 투자하는 ‘라운드힐 볼 메타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했다.

글로벌 기업들도 발 빠르게 자사 사업에 메타버스를 접목하고 나섰다. 패션브랜드 버버리는 메타버스 게임 ‘블랑코스 블록 파티’에 아바타 샵키B를 선보였다. 에픽 게임즈는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지난해 4월 래퍼

트래비스 스콧의 콘서트를 개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디즈니 등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놴다. 페이스북은 사명까지 ‘메타’로 바꿨다.

사업들도 연이어 흥판을 치며 수익성을 증명했다. 포트나이트 게임 내에서 열린 스콧의 콘서트는 동시 접속자가 1230만 명에 달했다. 매출도 오프라인 콘서트를 가뿐히 앞질렀다. 2019년 스콧의 오프라인 콘서트 매출이 170만 달러였는데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콘서트 매출은 2000만 달러에 달했다.

더타임스는 “에픽게임즈 모장스튜디오 등 게임회사의 스킨(아바타 외형 등을 바꿔주는 아이템) 매출이 지난 5년간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버버리 샵키B의 가치는 출시 가격 대비 3배 이상으로 뛰었다. 레이첼 왈러 버버리 이노베이션 채널 부사장은 “메타버스는 미래의 수익”이라고 평가했다.

마케팅 용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메타버스 붐을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더타임스는 “대부분의 사람이 메타버스보다는 현실을 더 원한다”며 “가상세계의 가능성을 너무 크게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실패한 사례도 나왔다. 2003년 선보인 VR 플랫폼 세컨드라이프가 대표적이다. 창업자인 필립 로즈데일 역시 스티븐슨 소설의 영향을 받았다. 오늘날의 메타버스처럼 세컨드라이프는 VR로 구현한 세상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 세컨드라이프 플랫폼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돈을 벌 수 있고 통용되는 화폐도 있었다. 아디다스를 비롯한 다양한 브랜드가 세컨드라이프에서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출시하기도 했다.

세컨드라이프의 성과는 예상에 못 미쳤다. 2010년 직원의 30%를 해고하고 영국과 싱가포르 사무소를 폐쇄했다. 로즈데일은 메타버스 기술에 대해 “실리콘밸리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환상”이라며 “기술에 의지하는 삶을 원하는 소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타버스를 구현할 기술도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메타버스 세계의 현실감을 증폭시킬 VR·AR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가정이 적다. 선 모나한 가디언 칼럼니스트는 “메타버스는 개념이 나온 지 30년이 지났지만 VR과 AR 기기 등이 아직 충분히 보급되지 못했다”고 했다.

현재 통용되는 메타버스의 개념이 너무 기초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마케팅 용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단순히 디지털 아바타를 이용해 온라인 세계에서 활동하는 것을 두고 과연 메타버스라고 지칭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세계인 메타버스의 본래 가치를 살리려면 많은 사람이 꾸준히 소통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현해야 하는데 단발성으로 그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대선 후보 시절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란 게임 안에서 아바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캠프 홈페이지 2 세컨드라이프 플레이 장면. ©세컨드라이프

치는 경우가 잦다.

메타버스가 제대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많은 사람이 같은 화폐를 쓰면서 그 화폐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처럼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지속 가능하다고 평가해야 메타버스를 ‘또 다른 현실’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어떤 회사도 메타버스를 스스로 구축하지 못할 것”이라며 “수백만 명의 사람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 건설현장에도 활용?

하지만 쉽게 ‘허상’으로 치부하긴 이르다. 현재 메타버스는 ‘세컨드라이프’와 콘텐츠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다르다. 중장기적 지속성이 강화됐다. 대체 불가능 토큰(NFT)과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암호화폐 등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수익도 낼 수 있게 됐다. 이용자에게 참여 동기가 늘어난 셈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부동산 거래가 이를 뒷받침한다. 메타메트릭솔루션스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세계 4대 메타버스 플랫폼(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크립토복셀, 스킨움)에서 지난해 거래된 가상 부동산 규모는 약 5억 달러에 달한다. 올해 1월에만 8500만 달러어치가 거래됐다. 이 중 디센트럴랜드에 삼성 전자 미국법인이 가상 매장을 개설하면서 디센트럴랜드에서 쓰이는 가상 자산인 ‘마나(MANA)’라는 암호화폐의 가격은 반나절 만에 40% 가까이 치솟았다.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세컨드라이프’ 당시보다 기술도 발전해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직접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실세계 공장의 복제판을 메타버스에 구축하는 ‘디지털 트윈’ 전략이 대표적이다. 현대차는 올해 3D 콘텐츠 개발·운영 회사인 유니티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가상공장을 구축하기로 했다. 실제 공장과 동일한 ‘메타 팩토리’를 가상공간에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BMW는 독일 레겐스부르크 공장을 본뜬 디지털 공장을 엔비디아가 만든 메타버스 세계인 ‘엔비디아 유니버스’에 만들었다. 실제 공장을 시범 가동하지 않고도 최적화된 공장 가동률을 산정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타임지는 “이 기술을 통해 공장 운영을 계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 25%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랜도이코노믹파트너십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디지털 트윈’을 건설하기 위해 유니티와 제휴를 맺었다. 교통 전문가는 이를 통해 철도 시스템이 들어오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할 수 있고, 통신 기업은 5G 네트워크를 어떻게 매핑하면 좋을지 계획할 수 있다. 팀 줄리아나 올랜도이코노믹파트너십 CEO는 “이번 프로젝트에 100만~200만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척추 인프라’로 발전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책상 위에 불어온 봄바람 아무튼 문구!

문화칼럼 3월, 푸릇푸릇한 새 학기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새 봄, 새 옷, 새 친구, 그리고 새 문구! 비단 학생 신분이지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문구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너무 익숙해서 자각하지 못할 뿐.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책상 위에서 새롭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실용성과 미학을 고루 갖춘 문구를 소개한다. 글=권나윤 자유기고가



제로퍼제로 <다이어리 스티커>

감각적이고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오랜 시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제로퍼제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문구류도 만나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일명 '다꾸' (다이어리 꾸미기)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인 스티커는 제로퍼제로 특유의 따뜻한 감성이 물씬 묻어 있다. '피플, 페이스, 동물들, 음식, 오브젝트, 걸어가자' 등 다양한 콘셉트로 마련돼 있어 골라 쓰는 재미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빛을 받으면 반짝거리는 작은 크기의 스티커가 주는 큰 기쁨!

smartstore.naver.com/zeroperzero



라이프앤피시스 <투명젤펜>

손글씨를 쓸 일이 많이 없어진 요즘에도 펜은 필요하다. 학생은 필기를 해야 하고 사회인은 메모를 해야 하고 연애하는 사람은 편지도 써야 하니까. 그렇다면 이왕 쓰는 거 더 기분 좋고 더 부드럽게 국산 브랜드 라이프앤피시스의 투명젤펜으로 써보자. 물 흐르듯 술술 써지는 필기감은 물론이고 또렷하고 유니크한 14종의 색상까지! 잉크 컬러마다 심 파이프 색도 다르고 렉 드라이 젤 잉크로 빠르게 마른다는 것이 강점. 0.38mm 두께로 얇은 필기감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딱이다. 리필심도 판매해 애착 볼펜으로 지속해서 쓸 수 있고 환경보호도 실천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좋지 아니한가. livework.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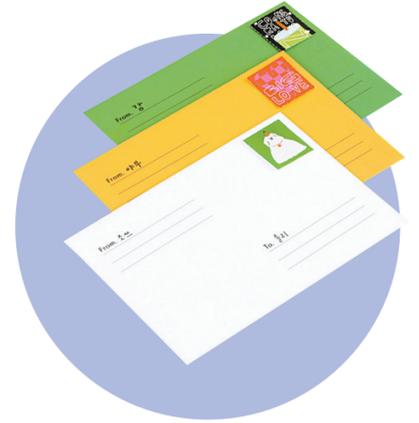
소소문구 <디깅노트>

'쓰는 사람을 위한 문구'를 만드는 소소문구는 그 명성에 걸맞게 '쓰는 생활'을 돕는 문구들로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디깅(Digging) 노트'는 '한 분야에 몰두하며 얻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한다'는 뜻으로 이름 지어진 노트.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 PU 커버와 표면이 매끄럽고 번짐이 적은 MFC 종이로 이뤄져 있어 이름처럼 '디깅'하며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제작됐다. '디깅 캘린더 스티커팩'을 붙이면 플래너가 되는 건 하나의 팁. 무언가 시작하기로 결심한 3월의 당신에게 디깅노트를 추천한다. sosomoong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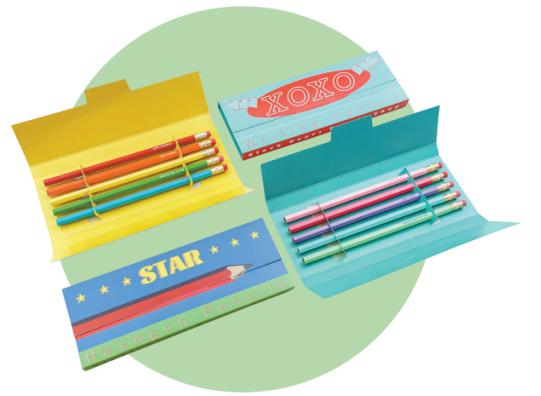
모모팝 <모모마테>

국내 마스크테이프계의 신형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감성 디자인 문구 브랜드 모모팝.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는 와중에도 모모팝의 마스크테이프인 '모모마테'는 두터운 마니아층을 자랑한다.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유니크한 패턴과 깔끔한 접착력,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한 번도 안 산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산 사람은 없다고. 베스트셀러인 크레용 체크 마스크테이프뿐 아니라 제주 라인 마스크테이프도 큰 인기몰이 중이다. 디자인 마스크테이프는 다이어리 꾸미기는 물론 선물 포장, 데커레이션, 인테리어 용도로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사실! 눈길을 사로잡는 알록달록한 마스크테이프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보자. www.momopop.com



오롤리데이 <O,LD! Letter set>

모든 이의 일상이 언제나 'oh, happy day!'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행복'을 모티브로 다양한 작업을 하는 브랜드 오롤리데이에서는 귀엽고 유니크한 문구용품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올해 새롭게 제작된 '편지지 세트'가 가장 눈에 띈다. 편지지 6장, 봉투 3장, 4종 스티커 1장, 6종 데커레이션 스탬프 1장으로 풍성하게 구성돼 있어 이 세트 하나만 있으면 편지쓰기 준비 완료! 짧은 편지도 긴 편지도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도록 7.5mm의 줄 간격으로 제작된 세심함까지. 이제 당신의 깊은 마음을 손 글씨로 전해볼 차례다. oh-lolly-day.com



작은연필가게 흑심 <메시지 연필 세트(STAR)>

언젠가부터 추억의 도구가 되어버린 연필. 하지만 연필은 여전히 문구의 꽃이다. 이러한 연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연필을 소개하고자 '작은연필가게 흑심'이 탄생했다. 빈티지부터 시즌 에디션까지 이 세상의 모든 연필이 다 모여 있는 듯한 이 가게에서 선물용 연필을 찾는다면 '메시지 연필 세트'를 추천한다. 총 16가지 색상의 연필에는 저마다 다른 메시지가 각인돼 있어 있는데 이 중 다섯 자루를 선택하면 예쁜 패키지에 담아준다. 좋아하는 색이나 마음에 드는 메시지를 골라 다양하게 조합하는 재미까지 쏠쏠. 연필에 원하는 문구도 각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울퉁 커스터마이징한 연필 하나쯤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 blackheart.kr

모리스 <초콜릿 크레용>

'문구로 미래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진 모리스는 경쟁력 있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며 국산 문구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초콜릿 크레용'은 피부가 예민한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특별한 크레용이다. 석유 추출물로 만드는 일반 크레용과 달리 카카오버터로 만들었기에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하다. 100% 무독성인 것은 물론 손에 잘 묻지 않고 쉽게 부러지지 않아 오래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감쪽한 별 모양은 아이들이 손에 잡기 편해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니 영유아 자녀나 조카가 있는 이들에게 강력 추천한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패키지로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

www.morrisplus.com

뮤지컬 음악감독이라는 천직, 그 기쁨과 무게

피플인사이드 20여 년간 <레미제라블> <맘마미아> <레베카> 등 50여 편의 뮤지컬 음악감독을 맡았던 김문정. 그가 더욱 주목받는 건, 개인의 활동을 넘어 뮤지컬 분야 전체를 위해 내디딘 행보 때문이다. 2004년 국내 최초의 뮤지컬 전문 오케스트라 'The M.C'를 만든 데 이어, 2019년에는 뮤지컬 전문 기획사인 'THE PITT'를 세워 뮤지컬 종사자들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글=김민희 <툰클래스> 기자 / 사진=서경리 <툰클래스> 기자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이의 눈빛은 호기심과 재미, 열정과 몰입으로 빛난다. 좋아하는 일이 업이 될 확률은 극히 낮지만, 그것이 현실화되면 그 결과물은 폭발적이다. 그 폭발력의 추동체는 시간이다. 좋아서 한 일들이 시간과 함께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덧 빛을 발한다. 김문정 음악감독이 그런 사람이다. 지휘봉을 쥐는 순간 그의 눈빛은 돌변한다. 매서운 사자의 심장과 천명의 예술혼을 한 몸에 지닌 듯, 또 다른 자아가 튀어나온다. 희로애락의 감정선을 이끌어내는 그의 지휘봉 끝에서 뿜어내던 음악은 생명력을 얻는다. 슬픔은 더욱 슬퍼지고, 기쁨은 배가 되며, 분노와 환희가 롤러코스트를 타듯 극대화된다. 음악감독 경력 21년 차의 김문정 감독은 2001년 뮤지컬 <둘리>를 시작으로 50여 편의 작품을 맡았다. <레미제라블> <맘마미아> <미스 사이공> <영웅> <레베카> 등 라이선스 뮤지컬은 물론, 자신이 직접 작곡에 참여한 창작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 <도리안 그레이>도 감독했다.

Q 뮤지컬 음악감독 21년 차, 무려 50여 편의 작품을 맡았습니다.

아마 편수로만 보자면 세계 최다이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에서는 평생 한 작품만 하는 음악감독이나 연주자들도 많거든요. <레미제라블>이나 <캣츠>가 대표적이죠.

Q 한 분야를 20년 이상 하면 공연할 때 긴장이 안 되나요?

첫 공연은 특히 긴장되고 매 공연도 어느 정도 긴장이 돼요. 공연마다 똑같지 않으니깐요. 모든 공연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관객 때문이거든요. 관객 분들이 공연의 최후 정점을 찍어주는 역할을 해요. 관객에 따라 운영 체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Q 어떤 식으로요?

박수가 길면 다음 신에 여유를 두고, 박수가 없으면 빨리 붙여야 해요. 또 관객들이 호응을 해주면 배우들의 에드리브가 추가되기도 하고, 배우들이 안 쓰던 에너지를 쓰게 되면서 음악 길이가 조금씩 달라져요. 이런 부분을 관객 여러분이 꼭 아시면 좋겠어요.

Q 코로나 시국에서는 아무래도 관객 반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은 공연이 전반적으로 힘들어요. 관객 수가 제한되니 반응 자체가 작고, 아무리 마스크 안에서 환호하고 웃더라도 관객 표정이 안 보이니까요. 이런 반응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익숙해지려 노력합니다. 안 그러면 힘이 빠지니까요. 이런 현실이 슬퍼요.

Q 지휘할 때마다 눈물 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떠올리기만 해도 몸이 들썩거리는 작품이 있다고요.

<서편제>는 지휘할 때마다 울었어요. <레미제라블>의 판틴이 '아이 드림드 어 드림(I dreamed a dream)'을 부를 때도 울면서 지휘했어요. 저의 정서에 맞는 작품을 하면 일의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는 맘껏 울면서 치유도 됐고요.

Q 감정 이입을 잘하나 봅니다.

예술가의 공통점이겠죠. 모르는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 '왜 그랬을까, 어떤 느낌일까'를 느껴야 꼭대기 쓸 수 있고,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감수성은 타고난 면이 크고, 일을 통해 강화된 면도 있어요. 원래 눈물이 많았는데 나이 들면서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민감한 상황이 많아요.

Q 그것을 잃지 않는 것도 능력이에요.

직업적으로도 감정 이입과 감성 유지는 중요해요. 대부분 경험하지 않았던 시대와 환경을 다루게 되잖아요.



황후, 혁명, 독립투사 이야기 같은 것들은 노력해서라도 공감을 가져가야 해요. 그래서 <영웅> 때는 『안중근 평전』을 읽으면서 펄펄 울기도 했고, <마리 앙투아네트>를 할 때는 『벌거벗은 세계사』를 읽으면서 작품 속 표현 방법의 힌트를 얻기도 했어요. 어쨌든 시대와 공간, 직업군 등 모든 것이 다른 캐릭터들은 무대 위에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죠. 지금은 <레베카>의 댄버스 부인과 사랑하는 중이에요. 공연이 지속되는 동안 진짜로 사귀는 기분이 들어요. <영웅> 때는 안중근 의사가 한 말과 행동이 너무 멋져 보여서 꼭 빠졌었죠.

Q 작품이 끝나면 그 캐릭터와 이별이 되나요?

네, 단칼에요. 다음 작품의 친구로 갈아타야 하니까요. (웃음)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게 진정성을 위한 공감 같아요. 배우들이 먼저 그 캐릭터를 사랑하게 되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살아보지도 않은 시대의, 가보지도 않은 곳의 캐릭터를 진정성 있게 연기할 수 있겠어요. 캐릭터에 푹 빠져서 '왜 이랬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교감해야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캐릭터와 연결돼 있지 않으면 미세한 변화

를 포착하기 힘들어요. 컨디션을 살피면서 '아, 오늘 저 부분에서 더 우네'가 느껴지면 '이 부분에서 조정을 해줘야지' 식으로 조율되는 거죠.

Q 노래도 집중하면서 연주자들의 소리도 놓치지 않고, 배우들의 감정선도 살피면서 무대 장치까지 신경 써야 하네요.

멀티죠. 무대가 제 시간에 들어오는지, 연주자들이 제대로 집중하는지, 관객 반응은 어떤지를 듣고 느껴야 해요. 무엇보다 솔리스트의 연기도 매 순간 봐야 하고요. 멀티가 꽤 잘되는 편인데, 이걸 걸러진 부분이에요. 엄마 영향이 커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셨거든요.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늘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 집에서는 앉거나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보더라도 조건이 있어요. 빨래를 개든지, 마늘을 까든지, 김을 재면서 봐야 해요.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Q 멍 때리기 할 줄 아세요?

못해요. 근데 얼마 전 불명을 해보니 좋더군요. 배우 정성화씨가 캠핑을 좋아해서 같이 갔는데, 타닥타닥 소리도 좋았고, 장작이 타 들어가면 다시 채우는 것도 좋았어요. 멍 때리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라면서 뇌를 리셋하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시간을 배로 쓰는 연습을 해왔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다 보니 몸에 밴 습관 같아요.

Q 친정어머니와 남편한테 아이들을 맡기고 주 2회 음악을 배우러 다녔다고요.

재밌었어요. 당시 삶은 진짜 힘들었지만요. 아침에 일어나서 뛰어들었어요. 아이들 밥 먹이고, 머리 빗기고, 옷 입히고, 준비물 챙겨서 보내고, 저는 열 시까지 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일은 진짜 재밌었어요.

Q 뮤지컬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거리는군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천직이라고 느끼나요?

네. 아무리 힘들어도 지휘봉 잡고 20분이 지나면 약 기운이 돌아요. 이상하게 약을 먹은 사람처럼 활기차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천직이구나 싶어요. 그래서 멤버들이 놀려요. '아, 힘들어' 하면 '감독님한테 빨리 지휘봉 갖다드려. 일단 젓가락이라도 쥐어드려' 하고요.

Q 번아웃이 온 적은 없나요?

모든 걸 날버리고 싶은 순간은 있었죠. 멀리 도망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래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요. 책임져야 할 대상이 많다 보니 쉽지 않아요. 또 힘들 때 태세 전환을 잘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이 일은 겪게 돼 있어' 식으로 받아들이고 마인드를 바꿔요.

Q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하모니죠. 각각 솔리스트로서도 손색없는 분들이라 제 이야기가 먹히려면 그들과의 신뢰가 중요해요. 제 말로 인해 위축되거나 주눅 들지 않게 하는 언어 스킬도 필요하고요. 가끔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커피 마시지' 제안하기도 해요. 원만한 관계 속에 순조로운 조화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Q 요즘 뮤지컬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도전하고 있다고요.

뮤지컬도 영화처럼 현장에서 익힐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구상하게 됐어요. 현재 한국 대학들은 배우를 길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조명 감독이나 음악감독 등 스태프를 길러내는 과가 없어요. 연극영화과나 공연학과 배우 지망생이 배우로서 꿈이 좌절되거나 다른 관심 분야가 생겨서 스태프로 전환하는 게 통상적이예요. 지금은 이런 계획이 있다고 알려진 단계입니다. 한두 푼으로 할 수 없는, 인력과 재력이 요구되는 일이나니까요.

Q 먼 훗날, 한국 뮤지컬의 역사가 쓰인다면 어떤 표현으로 남고 싶은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거창하게 뭔가 역사적인 획을 긋거나 하는 식의 표현은 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함께한 기억이 행복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일을 잘한답시고 본인의 아니게 던진 말에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함께한 순간이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었어'라는 한 조각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플랜트의 시작, 비료공장

- 1963 호남비료 나주공장**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수행한 플랜트 프로젝트
- 1966 한국비료 울산공장**
당시 세계 최대 규모 단일 비료공장. 일산 590t 암모니아, 1000t 요소 플랜트를 9개월 만에 완공
- 2012 카타르 5·6차 비료공장**
단일 지역 세계 최대 규모. 일산 2300t 암모니아 플랜트와 3850t 요소 플랜트 각 2기 및 저장·운반 출하시설 건설

현대 플랜트 산업의 메인스트림, 가스 플랜트

- 2013 UAE 아부다비 합산-5 가스공장**
UAE 최대 규모, 총공사비 약 17억 달러 공사를 설계·구매·시공·시운전 포함하는 EPC 방식으로 단독 수주. 일산 21억5000만ft³의 대규모 가스 정제 시설
- 2020 사우디아라비아 우쓰마니아 에탄화수처리시설**
일산 14억ft³의 가스를 에탄·프로판 등 천연 가스액으로 분리하는 시설. 무게 820t, 높이 75m의 에탄화수처리시설 핵심 장비인 디메타나이저를 단 4시간 만에 설치 기록
- 2022 예정 쿠웨이트 알주르 LNG 수입터미널**
700만m² 면적의 바다를 매립해 하루 30억m³ 처리능력 규모의 LNG 재가스화 및 기화송출 설비와 22만5500m³ 규모의 LNG 저장탱크 8기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

- 2005 이란 사우스파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4·5단계**
2002년 우리 회사 해외 수주 금액 목표의 67%에 해당하는 16억 2300만 달러 규모



- 2019 UAE 사브 해상원유 정제시설 및 가스 처리시설**
우리 회사의 EPC 전 과정이 최초로 적용된 해상 플랜트 공사를 포함, 육·해상 공사 동시 수행



세상을 가동하는 힘, 정유·석유화학·제철

- 2015 사우디 마덴 알루미늄 제련소**
연산 180만t의 대규모 알루미늄 공장
- 2016 UAE 보로지 3XLPE**
전력케이블의 전열 재료인 XLPE 생산시설 건설 및 QC 실험실 중설 프로젝트
- 2022 예정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일산 14만 배럴 규모의 정유 설비 고도화 시설 공사. 수주금액 60억4000만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며, 우리 회사는 조인트벤처(JV) 리더로 약 16억 달러 규모 담당. 플랜트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중동 지역에서의 성과
- 2021 HPC Project Package-1**
초대형 고부가가치 산업. 원유 정제 공정에서 남은 중질유를 열분해해 석유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설비 건설

*XLPE(Cross-Linked Polyethylene): 가교폴리에틸렌

창립 75주년특집

기록으로 되짚어보는
플랜트 프로젝트

③플랜트편 창립 75주년 기념으로 돌아보는 현대건설의 역작 시리즈. 이번 호에서는 산업 전반의 토대가 되는 플랜트 사업을 짚어 본다. 규모가 크고 설계가 복잡해 까다롭기로 손꼽히는 분야지만 현대건설은 다양한 메가 프로젝트 경험과 고도의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글·정리=이진우 / 도움=이동선 매니저

*준공연도: 현대건설 70년사 기준



전력 네트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에너지

- 2019 서산 태양광발전소**
우리 회사가 최초로 수행한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 사업 개발부터 설계·구매·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태양광 발전의 토탈 솔루션 제공

연간 전력 생산량



2011 카타르 라스라판C 복합화력발전소

우리 회사의 기술력이 응집된 담수·발전 플랜트의 완결판. 카타르 전체 전력의 30%에 해당하는 2730MW급 발전설비와 카타르 전체 인구의 절반이 소비할 수 있는 일산 6300만 갤런의 담수설비 건설. 도하 등 카타르 내 3개 도시 외에도 사우디까지 전력과 물 공급

2017 아랍에미레이트 미르파 담수복합화력발전소

218만m² 부지에 총 1600MW급 발전설비, 일산 525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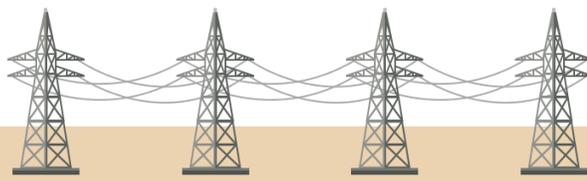
갤런의 담수설비를 최단 기간(30.5개월)에 건설

2018 인도네시아 사물라 지열발전소

우리 회사의 첫 지열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19만m² 부지에 110MW급 3기, 단일 지열발전소로서 최대 규모

2019 우루과이 폰다 델 띠그레 복합화력발전소

우리 회사의 우루과이 첫 진출 프로젝트. 530MW급 복합화력발전소로 우루과이 발전설비 용량의 24%(최대치) 담당



인류에 주어진 제3의 불, 원자력발전소

- 1978 1983 고리1·2호기**
우리나라 원전 개발 첫 도전
- 2016 2019 신고리3·4호기**
우리나라 최초의 3세대 가압경수로(APR1400) 원전. 신고리3호기는 3세대 가압경수로 중 세계 최초로 상업운전 시작. 신한울1·2호기 및 UAE 원전의 참조 발전소

고리1호기 가동으로 **21** 번째 원전 보유국

2022 예정 한빛 3·4호기 중기발전기 교체 시공 용역
우리 회사가 1995년 준공한 1000MW급 한국 표준형 원전(OPR1000) 중기발전기 4기 교체

2023 예정 UAE 원전

한국형 원전(APR1400) 4기, 총 5600MW 규모 전원 확보 계획. 우리나라가 세계 다섯 번째 원전기술 수출국 반열에 오르는 계기. 아부다비 바라카 지역에 건설하는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사업

전력을 세계로, 송·변전

- 1982~ 사우디아라비아 380kV 송전선로**
사우디아라비아 및 걸프아랍협력회의의 국가 전역에 확대 적용된 송전선 공사의 표준 '현대 스탠더드'의 효시
- 1992 345kV 일도-양주 송전선로**
당시 국내 기술로 설계된 최장 장경간 송전선. 당시 동양 최고 높이 195m의 마천루 철탑 2기를 우리 회사 자체 기술로 시공
- 2009 최첨단 GIS 자동화 변전소 시장 진출**
UAE, 아부다비 및 두바이에 132kV·400kV 완전 무인 자동화(SAS) 변전소 준공
- 2024 예정 사우디아라비아 500kV HVDC 송전선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사우디 최초 500kV HVDC(초고압 직류 송전) 건설 프로젝트

